

“천원 밥상에 이웃사랑 듬뿍 퍼 드립니다”

2018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❸ 천원식당 자원활동가들

법정스님 유지 받들어
소외이웃에 따뜻한 점심 6년
후원금·식재료 기부 큰 힘
“만년 적자 힘들어도 행복”

2일 오전 방문한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전남본부 건물 1층 점심공양나눔식당(천원식당)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10평(33㎡) 규모 주방에서는 자원활동가(이하 활동가)들이 점심 준비에 한창이었다. 정성이 깃든 밥값은 단돈 1000원이다. 따로 돈을 받는 사람 없이 손님 스스로 1000원 이상을 후원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하고 100여개의 식당 안의 자는 꽤 찼다. 덩달아 자원활동가들도 바빠졌다.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치우고 설거지 하느라 쉴 새 없이 손을 놀렸다.

봉사자 가운데 ‘정일점’인 조주호(65)씨는 “4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다”며 “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라 남자들의 도움은 필요 없을지 알았는데 배추 나르는 일부터 식기 정리까지 정신없이 바쁘다. 이제 는 숙달되다 보니 조금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천원식당은 회원 300여명의 후원금(매달 1~2만원)과 자원활동가에 의해 꾸려지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요일별로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다르다. 매일 5~7명이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자리한 비영리단체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전남본부의 천원밥집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호, 김용덕, 강해숙, 김연숙, 이금지씨. /최현혜기자 choi@kwangju.co.kr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 운영을 도맡고 있다.

밥값은 1000원이지만 음식에 쏟는 정성은 최고급 식당 못지 않다. 주로 찾는 손님들이 고령인 만큼 소화가 잘되는 나물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합성 조미료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인기있는 반찬은 단연 김치다. 첫갈고 고춧가루를 맛깔나게 버무린 김치는 손님들이 구입을 문의할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금지(여·65) 광주 ‘맑고 향기롭게’ 운영위원장은 “밥값이 싸니까 반찬은 수입산을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매달 2~3차례 김치 100포기씩 담그느라 힘이 많이 들어간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 가장 보람있다”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는 비영리 재단이지만 어느 무료 급식시설과 달리 꼭 밥값을 받는다. 식당 벽면에 붙은 포스터에는 ‘여러분이 주신 1000원은 밥값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현금입니다’가 큼직하게 써져있다.

‘맑고 향기롭게’를 만든 법정 스님은 생전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반대했다. 의아해하는 주변인들이 이유를 묻자 “공짜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나는 거지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얻어먹는 일에 습관이 들면 자포자기를 부추기는 꼴이다. 어려운 사람들일지라도 단돈 1000원을 받아 최소한의 자존심은 세워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들은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2012년 동구 자산동 광주병원 앞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 남몰래 천원밥집을

시작했다. 광주모임 창립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산수동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에도 특별한 행사도 열지 않았고 이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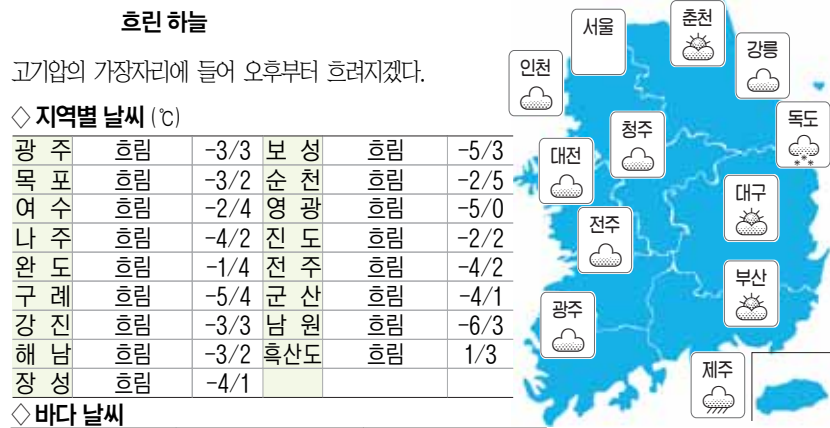
그동안 돈을 내지 않고 가는 양치 손님, 고기가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몽땅 음식을 퍼간 뒤 절반을 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였다. 반면, 후원금과 함께 집에서 키운 채소를 기부하는 농사꾼 부부부터 팔고 남은 갈치 토막을 건네 준 남광주시장 상인, 쌀을 싣고 온 장성 방앗간 아저씨 등은 큰 힘이 됐다.

고현(70) 본부장은 “밥값 1000원을 받으면 만년 적자운영이지만 활동가들과 후원가들이 있기에 힘겹게라도 식당을 꾸릴 수 있다”며 “천원밥집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33
해질 20:10
달일 09:19



◇지역별 날씨(℃)		◇생황지수	
광주	흐림 -3/3	보성	흐림 -5/3
목포	흐림 -3/2	순천	흐림 -2/5
여수	흐림 -2/4	영광	흐림 -5/0
나주	흐림 -4/2	진도	흐림 -2/2
완도	흐림 -1/4	전주	흐림 -4/2
구례	흐림 -5/4	군산	흐림 -4/1
강진	흐림 -3/3	남원	흐림 -6/3
해남	흐림 -3/2	축산도	흐림 1/3
장성	흐림 -4/1		

◇바다 날씨		◇물때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간조	08:41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만조	03:22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2.0		21: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2.0		04:17
남해	앞바다(동) 북~북동 1.0~2.5		16:54
남해	앞바다(서) 북~북동 1.0~2.5		23:02

◇주간 날씨		◇주간 날씨	
5(금)	☀️ -1/5	6(토)	☀️ -1/6
7(일)	☀️ -1/7	8(월)	☁️ 2/6
9(화)	☀️ -2/4	10(수)	☀️ -3/2
11(목)	☀️ -6/1		

5·18재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이달말 이사회…추천위원회 구성

5·18기념재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차기 이사장은 재단 개혁, 5·18진상규명 등 중책을 맡게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5·18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차명석 이사장의 임기(3년)가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렸다. 이사장을 낙점할 추천위원회 참여 인사는 비공개다.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1명을 선정하면 재단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방

식으로 선임된다. 이사회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이다.

5월 단계 안팎에서는 몇몇 인사들이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위인백현 5·18교육관장, 정상용 전 국회의원, 황일봉 전 5·18기념재단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중 이사장추천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수료에 제동 걸린 ‘초·중·고 교육비 카드 납부제’

교육부-금융권 면제 놓고 이견…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키로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았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카드 수수료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급식비와 수업료 등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사

동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일부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확대될 예정이었다.

여전법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제공

되는 재화·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교육비는 지금처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해도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주 안에 법제처에 이번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별과금 납부 7월부터 카드로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별과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별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분납 및 납부 연기 등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사고 빈번 ‘농성 지하차도’ 구조개선

내주부터 화정역 방면 우회로 설치…2020년 3월 마무리

상승점수와 교통사고가 잦은 농성 지하차도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이 착수된다.

광주시는 “농성지하 차도에 대한 본격 공사에 앞서 우회로를 만드는 가도(假道) 공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가도는 상록회관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1개 차로를 추가 설치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3월부터 지하차도에 대한 본격 공사에 착수,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1988년 만들어진 이 지하차도는 길이 215m로 경사도가 8%에 달해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물에 잠기는 일이 잦다. 차도가 급커브여서 운전자의 시야도 불량해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사는 지하차도의 시작과 끝 지점을 50여m씩 늘려 215m인 지하차도를 320m로, 현재 8%인 종단면 기울기는 5~6%로 낮춘다. /오광복기자 kroh@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상품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겨울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

①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12월 31일(일)	99,000원
② 정동진 · 월정사 · 휴휴암 기차여행(무박 2일)	1월 05일(금)	120,000원
③ 태백산 눈꽃축제 ·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④ 정동진 일출 · 하이원스키장 관광 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

① 남이섬 자유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② 대둔산 케이블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75,000원
③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④ 서천 국립생태원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⑤ 서울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08,000원
⑥ 정동진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20,000원

섬여행 상품

① 홍도 · 흑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② 울릉도 · 독도 여행(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③ 거문도 · 백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④ 청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⑤ 백령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55,000원~
⑥ 대마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90,000원~

버스여행 상품

① 고령 고분군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② 날줄보소 밀양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30,000원
③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운행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 울산광역시